
칠레: 중도좌파의 두 번째 자살

카를로스 오미나미

前 칠레 경제부장관 前 상원의원

원제와 출처: Carlos Ominami, "Chile: el segundo suicidio de la centroizquierda",
Nueva Sociedad, No. 274, marzo-abril de 2018, pp. 4-12.

핵심어: 민주주의, 진보주의, 변천, 콘세르타시온, 미첼 바첼렛, 칠레

칠레 중도좌파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확언하건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패배였다. 피노체트 독재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은 칠레 역사에서 단연코 가장 오래된 정치 연대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델을 따라 만들어져 1952년 패배할 때까지 칠레의 운명을 주도했던 인민전선(Frente Popular) 정부들보다도 길었다.¹⁾ 이 인민전선은 1927~1931년 사이 이미 독재적인 방식으로 통치한 바 있었던 포폴리즘적

1) 인민전선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이 만든 연대 조직으로 1938년 페드로 아그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카우디요였던 카를로스 이바네스 델 캄포(Carlos Ibáñez del Campo) 장군에게 패배했다.

2017년 12월에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는 55%의 득표율로, 집권 연대인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의 알레한드로 기이에르(Alejandro Guillier)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다. 이 수치는 공화국이 설립한 지 근 한 세기 동안에 우파가 얻은 가장 좋은 결과였다.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예측되었지만, 우파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기업인이었던 피네라가 1차 투표에서 얻었던 36.6%를 넘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1차 투표 결과 중도 및 좌파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율이 54%에 달했기 때문에, 우파 후보들이 약세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수치들로 피네라의 승리를 막을 수 있고 결선 투표에서 그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것은 집권 여당 세력들이 다시 통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는 수학과는 달랐다. 1차 투표에서 22.7%를 얻었던 기이에르는 결선투표에서 45.4%를 얻는데 그쳤다. 암플리오 전선(Frente Amplio)을 중심으로 결집된 신좌파 지지자들 중 3분의 1은 결선 투표에서 피네라를 선택했다. 엔리케스-오미나리(Enríquez-Ominami)의 지지자들도 거의 비슷했다. 반면 기독교민주주의 후보인 고익(Goic)의 지지자들은 약 4분의 3이 피네라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선거 처음부터 중도와 좌파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면 보다 나은 결과 혹은, 승리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로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이런 병리적인 현상은 이미 2009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것과 매우 유사했다. 당시 중도와 좌파의 득표율 합계는 55%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피네라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2017년 선거에서도 이런 양상이 반복되었고, 동일한

후보인 피네라를 이롭게 만든 두 번째 자살 행위였다. 우파가 다시 칠레를 통치하게 되었다. 1기 피네라 정부는 실제로 큰 과오 없이 그리고 그다지 큰 성과도 없이 지나갔다. 주요 우파 세력들은 이에 실망했다. 몇몇은 피네라 정부를 파트리시오 아일윈, 에두알도 프레이, 리카르도 라고스, 그리고 미첼 바첼렛 정부를 이은 “5번째” 콘세르타시온 정부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우파 정부가 그간 민주적으로 얻어낸 사회적 성취들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출생 후 지원을 6개월로 연장한다거나 은퇴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7% 삭감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 두 사안은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전 정부들이 높은 예산 부담을 핑계로 도입을 주저했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한편으로 우파는 매우 단결되어 의욕에 넘쳐 있으며, 피네라의 지도력은 보다 강고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기독교민주당은 대선에서 얻은 빈약한 득표율(5.8%)과, 12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난 의회 선거에서 오히려 21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선거 결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좌파는 일종의 군도처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암플리오 전선’의 선전이었다. 모든 예측과 달리 암플리오 전선의 베아트리스 산체스(Beatriz Sánchez) 후보는 대선에서 20% 넘게 득표했으며, 20석의 하원의석과 1명의 상원의석을 확보했다. 이런 암플리오 전선의 성과는 스페인의 포데모스 운동(Movimiento Podemos)와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칠레에서도, 좌파 전통 정당의 심각한 한계에 대한 대담으로 새로운 세력이 사회운동 세력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력은 좌파 전통 정당들을 대체하여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보수 세력들은 피네라의 승리를 환영했다. 기대했던 것처럼, 주로 남아메리카에 나타났던 진보 정권들의 퇴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주기의 끝

(fin del ciclo)'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최근의 책에서 밝혔던 것처럼²⁾, 주기 이론은 많은 선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아직 이 지역의 가장 큰 나라들(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에서 2018년 치러질 대선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피네라의 주요 동맹세력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와 페루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가 초반에 불리일었던 발전의 환상들에 대해서 회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쿠친스키의 경우에 의회 내 소수파적인 위치로 인해 탄핵의 위기에 몰렸다는 점에서 매우 극적이다. 이렇게 이 지역의 정치 환경은 칠레 우파가 처음에 평가했던 것보다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활발한 경제 성장,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 유럽의 양호한 경제 성과 등 세계 경제 정세는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칠레 수출의 주된 요소였던 구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칠레 우파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피네라는 적어도 하나의 주기는 두 번의 임기(8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은 12년을 말하기 시작했다. 매우 불안정한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망들은 단순한 의지 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경우에 중도와 좌파 세력의 뿌리 깊은 위기로 인해, 우파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해 2022년에도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예측도 매우 실현 가능하다. 다음 번 대선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바첼렛과 같이 엄청난 대중성을 지닌 인물이 없기 때문에, 좌파가 승리하리라는 전망은 훨씬 더 어렵다.

2) C. Ominami: Claroscuro de los gobiernos progresistas, América del Sur: ¿fin de un ciclo histórico o proceso abierto?, Catalonia, Santiago de Chile, 2017.

대답 없는 수많은 질문들

그렇다면 2기 피네라 정부는 새로운 대안 혹은 보수가 지배하는 긴 주기의 새로운 시작이 될까? 피네라는 단순하게 좌파에게 이기기 위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보다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즉, 피노체트의 유산을 뒤로하고 민주적인 우파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한다.³⁾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를 지지하는 ‘가자, 칠레(Chile Vamos)’라는 우파연합 내부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다. 독립민주연합(Unión Democrática Independiente, UDI) 뿐만 아니라, 국가혁신(Renovación Nacional, RN)에도 우파 세력들과 지도부의 신진 세대들이 주도하는 보다 자유주의적인 세력들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새 정당도 만들어졌다. 우파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치개혁당(Evolución Política, Evópoli)은 아직 소수정당이지만, 최근 의회 선거에서 2명의 상원의원과 6명의 하원의원이 당선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피네라 정부와, 정부를 지탱하는 우파연대 내의 이러한 의견 차이와 합의는 칠레 우파의 미래와 관련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정통적인 경제 정책의 폐기는 우파 정부들의 지속적인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긴 주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와 가치의 영역에서 보수가 취해온 전형적인 입장과 사회경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게 되면, 2021년 대선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것은 오늘날 선거 패배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과제 앞에 봉착해 있는 중도와 좌파 세력의 재구성 능력에 달려 있다.

3) C. Ominami: 《Obras son amores...》 en La Tercera, 3/2/2018.

2009년 패배로 인해 콘세르타시온은 자신의 정치적 대의명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언론이 말하는 이른바 ‘자해론자들(autoflagelantes)’과 ‘자기만족파(autocomplacientes)’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논쟁의 결말이 그랬던 것처럼⁴⁾, 중도좌파 연대가 쇠락하게 된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폐쇄적인 태도 이면에는 선거 논리가 놓여 있었다. 실제로 중도좌파 지휘부는 전직 대통령인 바첼렛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대중성에 기대 손쉽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거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략은 주변적인 것이었다. 뉴욕의 유엔여성기구(UN Woman) 총재직을 수행하던 바첼렛은 국내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고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략을 위해 필요했던 논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바첼렛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좌파 연대의 확대를 요구했고, 1990년부터 제도 영역에서 배제되어있던 공산당이 별다른 요구 없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첼렛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는 과정에서 중도좌파 정당들이 치러야 했던 비용은 엄청났고 확실한 미래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라는 굴욕적인 측면도 있었다.

바첼렛은 2013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결선투표가 치러져야 했지만, 바첼렛은 62.16%라는 칠레 선거사상 초유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다. 바첼렛의 정책은 1기 집권 시기(2006-2010)를 포함해 이전 콘세르타시온 정부와 명백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바첼렛 정부는 2011년의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가적인 의제를 수정했다. 따라서 헌법, 조세, 교육 개혁이라는 3가지 주요 개혁을 자신의 중심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4) C. Ominami: El debate silenciado, IOM, Santiago de Chile, 2009.

그러나 개혁 조치의 결과는 기묘했다. 모든 개혁조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새 헌법 문제는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교육 개혁과 조세 개혁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헌법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부조리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조세 개혁은 2014년 말 만들어진 원래 개혁안과 비교해 볼 때 대폭 수정된 채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진행된 협상 결과 극단적으로 뒤죽박죽인 수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은 곧 수정되어야 했다. 교육 개혁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첼렛 2기 정부의 주요 성취였다. 대학생들 중 하위 60% 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 교육 실시가 대표적이었다. 헌법 부분에서는 진전이 미약했다.

패배의 이유들

2013년 대통령 선거 동안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바첼렛의 개혁조치들은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세부 계획들로 인해, 개혁 정책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조세 개혁으로 인한 세수 증가의 대부분은 최고소득층에서 나왔지만⁵⁾, 휘발유,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 증가는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개혁으로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은 약해졌고, 곧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가 되었다. 보다 날카로운 방식으로 비슷한 일이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일어났다. 모든 교육 주체들, 즉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개혁조치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의 본질이 정부의 미숙한 정책에 있다는 것은 명확

5) Banco Mundial: 《Chile. Efectos distributivos de la reforma tributaria de 2014》, disponible en <<http://documentos.bancomundial.org/curated/es/4961314682282235/pdf/ReformaTributariaChile-Final.pdf>>.

하다. 분명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유일하거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누에바 마요리아를 구성했던 정당들의 결정으로 바첼렛 2기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누에바 마요리아의 책임이 보다 크고 불가피했다. 패배에 대한 이유는 많다. 게다가 매우 최근의 일이기도 하다. 패배에 대한 설명들은 아직 명확해져야 한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마누엘 A. 가레톤(Manuel A. Garretón)이 “위대한 단절”라고 명명했던 것과 관련된다.⁶⁾ 좋은 싫든,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 후 20년 넘게 만들어진 정치적 제도성은 콘세르타시온의 업적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아직 다 쓰이지 않았다. 칠레의 민주화 과정은 다른 지역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잘못된 협약에 의한 이행으로 우파와 군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⁷⁾ 권력을 상실했지만 군부는 엄청난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것은 적어도 군부와 경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재정 스캔들을 설명해준다.

콘세르타시온과 이후 누에바 마요리아를 구성했던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들이 점차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이 본질적이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 투쟁의 주인공이었던 노동 운동은 콘세르타시온과 누에바 마요리아가 기업과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학생 운동 또한 중도우파 정부와의 의미 있는 대화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학생운동의 첫 번째 움직임인 ‘펭귄’ 운동이 바첼렛 1기 정부가 시작한 해인 2006년에 비로소 일어날 정도였다. 칠레 주요 노동 세력인 교사노조, 그리고 공공부분 노동자들도 비슷했다.

동시에, 칠레 경제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빈곤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독재가 끝날 때 40% 이상을 기록하던 빈곤율은 현재 10% 남짓으로 지속적으로

6) M.A. Garretón: La gran ruptura. Institucionalidad política y actores sociales en el Chile del siglo XXI, IOM, Santiago de Chile, 2016.

7) C. Ominami: Los secretos de la Concertación, Planeta, Santiago de Chile, 2011.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 자신들의 경제적 성취를 유지하고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모든 종류의 난관은 정치 제도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중도우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정책적 실현의 희생자였다. 빈곤을 감소라는 커다란 성취는 새로운 부문을 나타나게 했고, 결국에는 그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유, 민주주의, 혹은 평등과 같은 민주화 이행 시기의 거대 주제보다 성장, 고용,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논의가 더 강한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주요 미디어의 광범위한 협력 아래 피네라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 잘 알려진 시나리오도 문제였다. 결국,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 진보주의 세력들의 문화적 패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패배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 가장 명확한 것들 중에서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인 빈곤화와 피로감, 역사적인 지도력의 저하, 기이에르의 잘못된 선거운동 등을 주목할 수 있다. 기이에르는 분열되고 의욕을 상실한 중도좌파 세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는 임시방편적인 후보에 불과했다.

진보주의의 과제들

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토론이 최근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길고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책임은 광범위하게 공유될 것이다. 콘세르타시온과 이행 과정의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사람들은 극도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 얻어냈던 주요한 성과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을 갖지 못했다. 반대로

민주화 이행에 나타난 많은 한계들을 직시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은 그 한계들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부차적인 이유들로 이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고⁸⁾, 중도좌파 연대 내의 가장 보수적인 입장들이 사실상 우위를 점했다.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의 연대가 보여준 것처럼 중도와 좌파의 연대는 피노체트에 저항하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콘세르타시온이 결성되었다. 이 연대는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이행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곧 20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적 연대로 변화했다. 낙관주의자들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커다란 합의는, 민주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그리고 피노체트라는 인물이 쇠락해감에 따라 점차 퇴색해 갔다. 피노체트는 심각한 인권침해, 그리고 많은 칠레인들이 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많은 공공 재화에 대한 불법적인 전유 혐의로 고발되었다.

민주주의라는 명분은 통합의 커다란 요인이었다. 반대로, 발전의 과제들은 다양한 이견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콘세르타시온은 상호 거부권 제도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즉, 커다란 의견 대립을 야기했던 발전 제안들을 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콘세르타시온 내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점점 더 축소되었다. 콘세르타시온의 변화 역량 역시 고갈되어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9년 첫 번째 패배가 나타났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공산당을 포함하여 누에바 마요리아로 변화한 후에 중도좌파 세력은 2014년 권력을 되찾게 된다. 바첼렛은 폭넓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주기를 열기 위해 노력

8) Ibid.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협정에 따라 당초 대통령 후보에게 종속되었던 중도좌파연대는, 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해 나감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한 내부 갈등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2기 바첼렛 정부의 역사는 크게는 내부에서 확산된 불신의 역사다.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기독교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했다. 이런 분열들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다. 기독교민주당이 1차 투표에서 독자 후보를 내세운 일은 피네라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콘세르타시온의 논리는 중도와 좌파 사이의 상호 이해가 '중도좌파'라는 하나의 독특한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좌파에 동화하려 하면서 기독교민주당은 내부의 우파성향 세력이 이탈했다. 동시에 좌파는 기독교민주당과의 연대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내부에서 좌파 성향 세력이 이탈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거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누에바 마요리아는 집권당의 위치를 상실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각 정치 세력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민주당의 상황이 가장 복잡하다. 칠레 유권자 중 약 3분의 1의 지지를 받던 칠레 정치의 중심 정당에서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기독교민주당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당 내부에는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이 다양한 분파로 쪼개졌던 것과 같은 환영이 떠돌고 있다. 동시에 좌파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파의 존재는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래의 건설에서 좌파의 정확한 역할은 훨씬 클 것이다. 엄청난 기술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전위의 세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바람이 가져오는 효과에 저항하는 후위의 세력이 될 것인가?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좌파가 답을 내지 못한 커다란 논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칠레의 토론은 훨씬 더 광범위한 논쟁의 일부분이다. 전부 혹은 거의 모든 것이 확실성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세계화, 시장경제 등에 대한 제안을 21세기의 주요 좌표들과 조율하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이 좌파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새롭게 구성된 사회민주주의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진보주의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좌파의 관점에서 나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것이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파진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가 우리들에게 야기하는 모든 도전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좌파의 커다란 한계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의 위대한 기치인 평등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현실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좌파가 적절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도 나타났다. 오히려, 좌파의 관행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위대한 도전과 많은 의미에서 대립된다. 좌파의 생산주의적인 전통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충돌한다. 전통 좌파의 전형적인 남성중심주의는 젠더 평등의 요구들과 대립한다. 그리고 좌파의 전통적인 국가주의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실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보다 적절한 용어의 부족으로 진보주의가 가장 포괄적인 범주가 된 것처럼 보인다. 진보주의의 범주는 분명히 모호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역사 속에서 보여준 용기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만 적용되는 좌파와 달리, 이것이 진보주의가 갖는 장점일 것이다.

이성훈 옮김